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伊藤貴祥 (이토 다카요시)*

이 글에서는 경상도 여러 지역 청년들의 방언에서 상성형에 일어난 음운변화와, 그 음운변화와 굴절 패러다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청년층 동남방언에서는 경북 내륙에서 $\dot{H}HM_0 > HHM_0$, 동해안에서 $\dot{H}M_0 > HM_0$ (일부 H_0M_0), 동부 경남에서 $LM_{M_0} > MHM_0$, 서부 경남에서 $LM_{0M_0} > M_0HM_0$ 처럼 모든 지역에서 상성형이 다른 성조형과 합류하였다. 이들은 모두 음성적으로 유효적인 장음 및 저조를 금지하는 제약 때문에 일어난 변화로 볼 수 있다.

단음화가 아직 진행 중인 경북 제보자의 언어를 검토해 보면 규칙 상성형 용언이 불규칙 상성형 용언보다 장음을 잘 보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동부 경남에서는 기원적인 LMM이 MHM과 MMH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는데 이 비율은 해당 어절이 어느 패러다임의 일부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핵심어: 청년층 방언, 성조, 상성형, 음성학적 제약, 굴절 패러다임

1. 머리말

이 글은 경상도 각 지역 출신 방언 화자의 언어에서 상성형에 일어난 변화와, 그 변화와 굴절 패러다임과의 상관관계를 기술·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여기서 말하는 상성형이란 동남방언에서 어절에 부여되는 성조형 중의 한 종류이며, 중세한국어에서 ‘:말, :말·쌈, :업스·니’처럼 첫음절에 상성(방점 2점으로 표기)을 가졌던 어절의 동남방언 반사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형들이 가지는 성조형을 말한다. 상성형은 전통적인 동남방언 내부에서 음조형(즉 음성적 실현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¹⁾ 평측형이나 거성형 같은 상성형 이외의 성조형은 그 음성적 실현에서 지역적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상성형은 네 가지로 반사되므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다만 전통적인 방언에서는 음조형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음성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상성형은 다른 성조형과 음운론적으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층 방언에서는 상성형이 다른 성조형과의 대립을 잃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상성형이 어느 성조형으로 합류하는지는 각 방언에서 전통적인 방언이 가지고 있는 상성형의 음조형에 따라 다르며 그것이 형태론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성조체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년들을 상대로 방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과 제보자를 선정할 때는 한 中방언권마다 지역이 하나 이상, 제보자가 두 명 이상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경북의 경우 동해안 지역에서는 포항(4명), 내륙부에서는 안동(2명)과 청송(1명), 서부지역에서는 김천(3명)을 골랐다. 경남의 경우 동부에서는 부산(2명), 중앙부에서는 창원(1명)과 통영(1명), 서부에서는 진주(2명), 총 16명을 골랐다. 中방언권에서 지역을 선택할 때는 가능한 한 대표적인 방언을 고르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필자가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지역 출신자를 조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혀둔다.

총 8지역 중에서 포항, 청송, 부산, 창원, 통영 출신자들은 모두 필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주 위덕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에 재직 중

1)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방언'이란 '표준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그 지역의 언어'를 의미한다. 단순히 '고령층 방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2010년대 현재 고령층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그 정의에 맞는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고령층 중에서 대대로 그 지역에 살고 한 번도 외지생활을 한 적이 없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중에는 그러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 있을 수 있고, 많은 방언 연구는 그러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지역의 고령자들의 일상 언어에서 괴리한 언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 학생들이다. 그리고 안동 제보자 2명 중 한 명은 방송통신대학교 2학년이고, 다른 한 명은 안동 가톨릭상지대학교 2학년이다. 김천 제보자 3명은 모두 김천농공고등학교 2학년이며, 진주 제보자 3명은 모두 진주교육대학교 2학년이다.²⁾

제보자를 찾을 때는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없고 부모가 모두 해당 지역 출신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조건에 완전히 맞지 않은 경우에도 제보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각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이름 ³⁾	생년	학년	성별	부친	모친	외지생활(단위:년)
김천	ZYuZ	93	고2	남	(동)	(동)	-
	EZeC	93	고2	남	(동)	(동)	-
	YXIZ	93	고2	남	(동)	(동)	-
안동	YPeL	86	대2	남	(동)	(동)	-
	FLaP	87	대2	남	의성	청송	장성2(군대)
청송	SHaZ	88	대2	남	(동)	(동)	안동3(고교), 홍천2(군대)
포항	ZYoZ	91	대1	남	(동)	(동)	-
	MJiJ	91	대1	여	(동)	경주	-
	YCeC	90	대2	남	(동)	(동)	-
	YMeJ	89	대3	여	(동)	(동)	-
부산	ZHaP	87	대3	남	김해	(동)	포항2(대학)
	EMeJ	89	대3	여	(동)	(동)	포항2(대학)
창원	XiGS	91	대1	남	마산	부산	마산3(1~3살)
통영	YLis	91	대1	여	(동)	원주	진주1(3살), 마산2(4~5살), 부산2(6~7살), 거제3(고교)
진주	DHuL	91	대1	여	(동)	사천	-
	XZeZ	91	대1	여	(동)	고성	고성11(2~12살)

2) 학업에 바쁜 가운데 흔쾌히 조사에 협력해준 제보자 여러분과, 제보자를 소개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조사환경까지 마련해주신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송희복 교수님, 박정수 교수님, 김천농공고등학교의 신은경 선생님, 위덕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우혜성 학생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3) 일반적인 방언 관련 논문에서는 제보자의 본명을 밝히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표와 같은 영문자로 된 가명을 사용한다.

제보자들 중에는 부모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거나 이전에 외지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제보자도 있다. 청송과 안동과 의성, 포항과 경주, 김해와 부산, 창원과 마산, 통영과 거제, 진주와 사천과 고성은 서로 같은 방언권에 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홍천, 원주와 같은 비성조 지역에서의 거주 경험은 성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ZHaP, EmiJ와 같이 다른 성조 방언권에서 생활을 하였거나 XiGS처럼 모친이 다른 성조 방언권의 출신이거나, YLiS처럼 어린 시절에 여러 지방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 네 명의 전체적인 성조체계를 볼 때 각 지방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네 명이 제공해준 자료는 해당 지역 청년층의 언어를 대표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조사는 2010년 3월 ~ 2011년 1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위덕대학교 학생에 대한 조사는 세 번에 나누어서 실시하였는데, 제1기 조사를 2010년 3월 27일 ~ 5월 7일, 제2기 조사를 9월 14일 ~ 17일, 제3기 조사를 2011년 1월 21일 ~ 26일에 하였다. 조사 장소는 필자 연구실이다. 조사 결과 분석 중에 의문이 생긴 경우 수시로 확인조사를 하였다. 위덕대학교에서의 조사와 병행하여 2010년 11월 24일에는 김천, 2010년 12월 20일에는 진주, 2011년 1월 16일 ~ 17일에는 안동에서 조사를 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장소는 각각 김천농공고등학교 방송실, 진주교육대학교 박정수 교수님 연구실, 안동에서 필자가 묵은 모텔이다. 김천, 진주, 안동 제보자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의문이 생기는 점에 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였다.

조사의 모든 과정을 녹음하였다. 사용한 기제는 시기마다 다르며, 2010년 3월~10월(위덕대학교 제1, 2기 조사시)에는 Olympus Voice-Trek V-50을, 2010년 11월 ~ 2011년 1월(위덕대학교 제3기 조사시 및 김천, 진주, 안동 조사시)에는 Sony PCM-M10을 사용하였다.

조사를 할 때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얻고자 하는 단어를 제보자가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일본어를 잘하는 제보자에게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일본어 단어를 제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제보자에게는 한국어로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굴절형을 묻는 경우에는 먼저 간접법으로 기본형을 묻고, 그 다음에 표준어 조사/어미를 제시하여 그 조사/어미에 해당하는 방언형 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해서 대답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체언 곡용형은 단독으로 발화시키면 경계억양(많은 경우 뒤끝이 올라가는 나열식 경계억양)을 발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문을 만들어서 발음하게 하였다. 용언 활용형의 경우 그런 현상이 적었기 때문에 굴절형을 단독으로 발화하게 하였지만 어떤 발화를 듣고 경계억양 때문에 성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문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경계억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상성형에 관련된 사항만 논의하지만, 조사할 때에는 각 제보자의 성조체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들을 두루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에는 체언 단순어간의 곡용, 용언 단순어간의 활용, 사동·피동 파생동사, 부정문, 의문문의 성조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방언권에 따라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어서 항목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1000항목 정도를 조사하였고, 조사에 걸린 시간은 제보자마다 3~5시간 정도이다.

2. 전통적 방언의 상성형

동남방언의 성조와 중세어의 성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 ‘하·늬, 이·름, 어·름, 아·들, 나·랏’은 15~16세기 방점 자료에서 제1음절에 해당하는 문자 왼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

4) 이 장에서는 중세어와 현대동남방언 사이에 있는 규칙적 대응관계에 대하여 논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중세동남방언과 중세중앙어의 성조체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응관계의 일관성으로 미루어볼 때 중세중앙어와 현대동남방언이 같은 조어에서 나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언어학적으로 충분히 의의가 있다.

고, 제2음절에 해당하는 문자 왼쪽에 점이 찍혀 있지 않다. 1점은 거성 즉 고조 /H/를 나타내고 무점은 평성 즉 저조 /L/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하·눔, 아·름, 어·름, 아·들, 나·랏’은 /LH/이라는 성조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⁵⁾ 이 단어들에 해당하는 ‘하늘, 이름, 어름, 아들, 나라’는 모든 현대동남방언에서 /HM/로 발음된다.⁶⁾ 이 5개 단어 뿐만 아니라 중세어에서 성조형 /LH/을 가졌던 단어의 동남방언 반사형은 기본적으로 /HM/을 가진다. 그리고 ‘까마귀, 미나리, 고사리, 비둘기’와 같은 단어들은 중세어에서 /LLH/를 가졌는데 현대동남방언에서는 /MHM/을 가진다. 이와 같이 중세어에서 /L/과 /H/로 이루어진 성조형 즉 평측형의 경우 동남방언의 /H/가 중세어의 /H/보다 1음절 앞에 이동한다는 규칙이 있다. ‘하루, 다리, 보리, 치마, 나무’는 중세어 성조형이 /LL/이며 /L/만으로 이루어진 평성형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동남방언에서 마지막 음절에 /H/를 가지기 때문에 ‘하루, 다리, 보리, 치마, 나무’는 동남방언에서 /MH/로 발음된다. 그렇다면 ‘파리, 모기, 소매, 나이, 구름’ /HL/, ‘도깨비’ /HLL/와 같이 중세어에서 /H/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동남방언에서 어떻게 발음될까? 이 경우 첫 두 음절이 높은 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파리’ 등은 /HH/, ‘도깨비, 무지개’는 /HHM/로 발음된다.

지금까지 논한 성조의 대응관계는 동남방언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규

5) 이 글에서는 중세어 거성을 H, 평성을 L로 표기한다. 거성은 어절 중 가장 먼저 나타난 것만이 음운론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음운표기인 / / 안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난 거성만을 H로 표기하고, 두 번째 이후의 거성은 L로 표기한다. 예컨대 ‘돛가·비’는 /HLH/가 아니라 /HLL/로 표기한다. 상승조인 상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L과 H의 연속인지 독립적인 성조 R인지에 대해서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음운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단순히 표기의 편의를 위하여 R로 표기한다.

6) 동남방언 성조를 표기할 때 H는 고조, M은 중조, L은 저조, m은 M보다 약간 낮은 중조, Ĥ은 중~고조 음역에서 상승하거나 상승이 없는 장음조를 뜻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방언 성조 관련 용어는 대부분 김차균(1980, 2004 등)의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정의를 바꾸어서 쓴 것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Ĥ’는 김차균(1980, 2004 등)의 ‘Ĥ’과 ‘M’를 포함한다.

칙이다. 달리 말하면 중세어에서 평측형, 평성형, 거성형을 가졌던 단어 혹은 어절은 동남방언이면 기본적으로 같은 성조를 가지며 지역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특이하게도 상성형 즉 중세어에서 상성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예컨대 ‘감, 게, 돈, 돌, 말(馬) /R/, ‘계집, 임금, 말쌈, 사람, 안개’ /RL/, ‘기지개, 거머리, 사마귀’ /RLL/ 등은 방언에 따라 서로 상이한 음조형 즉 음성적 실현형을 보인다. 다음 방언지도는 김주원(2000)의 지도를 이 글에서 쓰는 표기법에 맞춰서 약간 수정한 것이다.⁸⁾

(2)



- 7) 물론 이것은 개관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단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성조형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체계 안에 어떠한 성조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8) 각 음조형의 원래 표기는 L-HHLL, L-HLL, LHHL, LHLL이다. 상성형의 음조형을 시군 단위로 정리한 연구로는 이기문 외(1991), 이기문 외(1993), 최명옥(1999)가 있다. 최명옥(1999)의 방언지도는 김주원(2000)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가 두 지도를 김차균(1980, 2001, 2002, 2005), 김세진(2006), 박숙희(2008)에서 기술된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안동, 대구, 성주, 밀양, 창원, 고성, 진주, 사천, 하동, 남해 각 방언의 음조형과 비교한 결과 개별 방언에 대한 기술이 김주원(2000)의 지도와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김주원(2000)의 지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서는 상성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음조형에 따라 동남방언이 네 방언권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으로부터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언권은 울진, 영덕, 포항의 경북 동해안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상성형 4음절어가 / $\ddot{H}MMM$ /로 실현된다. 3음절이면 / $\ddot{H}MM$ /, 2음절이면 / $\ddot{H}M$ /, 1음절이면 / \ddot{H} /이다.⁹⁾ 두 번째 방언권은 동해안을 제외한 모든 경북지역과 경남 중 울산, 거창, 함양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다. 여기서는 상성형 4음절어가 / $\ddot{H}HMM$ /로 실현된다. 3음절이면 / $\ddot{H}HM$ /, 2음절이면 / $\ddot{H}H$ /, 1음절이면 / \ddot{H} /이다. 세 번째 방언권은 경남 동부 및 중앙부이다. 여기서는 상성형 4음절어가 / $LMMM$ /로 실현된다. 3음절이면 / LMM /, 2음절이면 / LM /, 1음절이면 / L /이다. 네 번째 방언권은 경남의 서부이다. 여기서는 상성형 4음절어가 / $LMmM$ /로 실현된다. 3음절이면 / LMm /, 2음절이면 / LM /, 1음절이면 / L /이다.

이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상성형 지역별 음조형

음절수	예어	경북		경남	
		동해안	대부분	중남부	서부
1	감, 게, 돈, 돌, 말, ...	\ddot{H}		L	
2	겨집, 임금, 말쌈, ...	$\ddot{H}M$	$\ddot{H}H$	LM	
3	기지게, 거머리, ...	$\ddot{H}MM$	$\ddot{H}HM$	LMM	LMm
4	기지게를, 거머리가, ...	$\ddot{H}MMM$	$\ddot{H}HMM$	LMmM	LMmM

전통적인 방언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상성형의 음조형이 청년층의 방언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다음 장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9) 이러한 성조형을 앞으로 $\ddot{H}M0$ 처럼 표기한다. 'M0'은 '0개 이상의 M의 연속'을 의미한다.

3. 청년층 경북방언의 상성형

경북방언에서 $\ddot{H}HM_0 > HHM_0$ 과 같은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김차균(1994)에는 대구에서의 진행 상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번 조사 제보자 중에서는 김천 제보자 3명 모두와 포항 제보자 4명 중 3명과 청송 제보자 1명의 언어에서 이 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이 확인되었다. 포항 제보자 중 MJiJ와 안동 제보자 2명은 상성형의 거성형화가 아직 진행 중이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포항 제보자들이 상성형을 HHM_0 , 혹은 $\ddot{H}HM_0$ 으로 발음한다는 점이다.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김주원(2000)에 따르면 포항은 상성형이 $\ddot{H}M_0$ 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며 박숙희(2008)의 기술도 이것과 일치한다. 이문규(2004: 144)는 영덕 청년층 방언에서 $\ddot{H}M_0 > HM_0$ 의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원래 음조형을 고려할 때 포항은 영덕과 동일한 변화 즉 상성형이 평1형(제1음절의 고조를 가지는 평측형)으로 바뀌는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필자가 포항 출신·거주의 YSuZ(1948년생, 여성)와 DJiG(1968년생, 남성)를 대상으로 따로 조사한 결과 YSuZ는 상성형을 $\ddot{H}M_0$ 으로, DJiG는 $\ddot{H}HM_0$ 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순으로 볼 때 포항에서 일어난 변화의 순서는 $\ddot{H}M_0 \rightarrow \ddot{H}HM_0 \rightarrow HHM_0$ 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후반부의 $\ddot{H}HM_0 \rightarrow HHM_0$ 은 단순한 단모음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ddot{H}M_0 \rightarrow \ddot{H}HM_0$ 은 자연스러운 음운변화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차용의 결과로 일어난 변화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리적으로도 넓고 대구라는 문화적·경제적 중심도시가 있는 내륙 지방의 음조형 $\ddot{H}HM_0$ 을 차용한 결과로 보인다.

YPeL, FLaP, MJiJ의 자료에서 장음이 나타나는 비율을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 (4)의 표이다. 체언 중에서는 상성형 어간과 거성형 어간, 용언 중에서는 규칙 상성형 1음절 어간(\ddot{H} 로 표시)과 불규칙 상성형 1음절 어간($\ddot{H}L$ 로 표시)의 전체 항목 중에서 장음이 나타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¹⁰⁾

(4)

	체언		용언	
	상성형	거성형	규칙 상성	불규칙 상성
YPeL	25%	0%	87%	14%
FLaP	50%	28%	62%	57%
MJiJ	30%	0%	30%	0%

FLaP와 MJiJ 데이터에서는 체언과 용언 사이의 큰 빈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YPeL은 용언에 비해서 체언에서 빈도가 훨씬 낮지만 자유발화에서 장음을 사용하는 빈도가 결코 낮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 비율 차이는 실제 언어습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조사 당시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질문지는 체언에 관한 질문 뒤에 용언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 순서로 짜여 있기 때문에 체언을 조사하였을 때는 긴장하여 장음을 잘 발음하지 않았다가 용언을 조사할 때쯤에 긴장이 풀려서 평소대로의 빈도로 장음을 발음하기 시작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모든 활용형이 상성형으로 나타나는 규칙 상성 용언 어간(Ĥ)이, 활용형의 일부가 상성형이고 다른 일부가 평측형인 불규칙 상성 용언 어간(ĤL)에 비해 높은 장음 출현 빈도를 보이는 것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즉 Ĥ는 모든 활용형에서 장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저성조를 의식하기 쉬운 데에 비해 ĤL은 일부 활용형에서만 장음을 보이기 때문이다. 혹은 Ĥ 어간의 장음에는 Ĥ 어간과 H 어간(모든 활용형이 거성형으로 나타나는 용언 어간)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으나 ĤL에는 장음으로 구별되는 어간이 없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 비율은 어절이 아니라 단어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상성형 체언은 24개, 거성형 체언은 28개, 규칙 상성 용언은 16개, 불규칙 상성 용언은 14개 단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MJiJ는 ‘말[Ĥ], 말이[ĤM], 말을[ĤM], 말보다[HĤM], 말까지[HĤM]’처럼 전체 어절이 1음절이나 2음절일 때만 발음하고 3음절 이상이면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곡용 패턴을 보였을 때에도 ‘말’이라는 단어가 장음으로 발음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율을 계산하였다.

FLaP는 체언에서 50%, 용언에서 62% 비율로 장음을 발음하였다. 그러나 FLaP는 본래 장음이 아닌 단어까지 장음으로 발음하는 이른바 과도교정을 28%라는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FLaP가 체언 상성형을 알고 장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은 실제로는 $50\%-28\%=22\%$ 에 불과하다.¹¹⁾ 표면적으로 장음을 발음하는 빈도와 반대로 FLaP가 장단을 구별하는 능력은 MJJ보다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으로 각 제보자의 장음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장음이 가지는 상대적인 ‘길이’와 장음이 음절 내에서 얼마만큼 높이가 상승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상승률’을 계산하였는데, 각 항목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인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장음으로 발음된 2음절 상성형 단어 10개로 이루어진 단어군A를 준비하여,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단음으로 발음된 2음절 거성형(YSuZ의 경우 상성형이 $\ddot{H}M_0$ 이기 때문에 평1형과 비교) 단어 10개로 이루어진 단어군B를 준비하였다. 단어군A의 제1음절 모음 길이의 평균치를 L_{A1} , 제2음절 모음 길이의 평균치를 L_{A2} 로 하고 단어군 B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L_{B1} , L_{B2} 의 값을 구하고 (5a)의 계산식에 넣어서 단어군A의 첫 음절이 가지는 상대적인 ‘길이’를 계산하였다. ‘상승률’에 관해서는 단어군A의 첫음절 모음이 시작할 때 높이의 평균을 P_s , 모음이 끝날 때 높이 평균을 P_e 로 두고 (5b)와 같은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하였다.

11) 이 계산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수학적인 근거가 있다. 먼저 자료상에서 상성형이 장음으로 나타나는 비율을 R, 거성형이 장음으로 나타나는 비율을 F로 둔다. 어떤 화자가 하나의 상성형 단어 혹은 거성형 단어에 관해서 그것이 장음인지 단음인지 정확히 기억해내는 비율을 X로 하고, 장단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장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을 Y로 둔다. 그렇다면 원래 상성형이 실제로 장음으로 발음되는 비율(R)은 장음이라는 것을 알고 발음하는 비율 X와 모르고 대충 발음했는데 우연히 맞는 비율 $(1-X)Y$ 를 합친 $X+(1-X)Y$ 가 되며, 거성이 장음으로 발음되는 비율(F)은 $(1-X)Y$ 가 된다. 즉 $R=X+(1-X)Y$, $F=(1-X)Y$ 이다. F=0인 YPeL과 MJJ의 경우 $X=R$, $Y=0$ 이 되기 때문에 상성형이 장음으로 나타나는 비율을 그대로 장단 구별 능력을 반영한 수치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FLaP의 경우 $X+(1-X)Y=0.50$, $(1-X)Y=0.28$ 에서 X 값을 구하면 $X=0.50-(1-X)Y=0.50-0.28=0.22$ 가 된다.

$$(5) \text{ a. 길이} = \{(L_{A1})/(L_{A2})\}/\{(L_{B1})/(L_{B2})\}$$

$$\text{b. 상승률} = \{(P_E)/(P_S)\} \times 100 - 100$$

각 제보자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길이	상승률
YPeL	1.64	+10%
FLaP	1.30	+9%
MJiJ	1.44	+2%

‘길이’를 기준으로 청년층 3명을 비교해보면 장단 구별의 능력과 ‘길이’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장단을 구별하는 능력은 YPeL > MJiJ > FLaP 순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길이’의 수치도 이 순서대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한 3명 이외의 경북 출신자 7명이 상성형과 거성형의 구별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음향음성학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표 중에서 ‘거성형’은 기원적으로 거성형을 가지는 10개 체언의 첫음절 모음 길이를 제2음절 모음 길이로 나눠서 비율을 계산하여 그 값을 평균한 수치이다. ‘상성형’은 기원적인 상성형 단어 10개 체언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마지막 항목은 첫 번째 값으로 두 번째 값을 나눈 결과이다.

(7)

지역	제보자	거성형	상성형	상성형/거성형
김천	ZYuZ	1.05	1.00	0.95
	EZeC	0.76	0.81	1.06
	YXiZ	1.04	0.97	0.93
청송	SHaZ	0.87	0.93	1.07
	ZYoZ	0.70	0.66	0.94
포항	YCeC	0.81	0.83	1.02
	YMeJ	0.79	0.90	1.01

이 표를 보면 ‘상성형/거성형’의 수치가 모두 0.9~1.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제보자들 언어에서 상성형과 거성형 사이에는 첫음절 모음의 상대적인 길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년층 동부 경남방언의 상성형

김차균(1973, 1980)은 당시 20대 진주방언 화자에서 $LM_{M1} > MH_{M1}$ 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번 조사자료 분석 결과, 이규칙의 동부판이라고 할 수 있는 $LM_{2M_0} > MH_{2M_0}$ 의 변화가 부산, 창원, 통영의 청년층 방언에서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음절 이상의 상성형과 평3형(제3음절의 고조를 가지는 평측형)이 합류한 것은 3음절의 상성형 체언 어간과 평3성 체언 어간의 곡용 패러다임이 완전히 합류한 사실만 봐도 분명하다.

2음절 상성형(LM)이 평2형(MH)으로 합류하는 변화의 진행도를 알기 위해서 녹음자료 중에서 상성형과 평2형을 각각 10개씩 골라서 음높이의 평균치를 산출해봤다. ‘-’ 앞의 수치는 제1음절 모음의 중간 부분 높이, 뒤의 수치는 제2음절 모음의 중간 부분 높이이며, 단위는 모두 Hz이다.

(8)

	/LM/	/MH/
ZHaP	174-185	181-192
EMeJ	208-222	202-225
XiGS	110-119	112-120
YLiS	253-281	245-259

두 어절의 평균치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수치만을 보면 모든 체보자가 /LM/과 /MH/의 대립을 잃은 것처럼 판단된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사람’/LM/과 ‘사랑’/MH/ 사이의 성조 차이를 느끼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XiGS와 YLiS는 ‘아니요’로 대답하였지만 ZHaP와 EMeJ는 ‘네’로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ZHaP와 EMeJ는 ‘사람’을 ‘사랑’과 비교할 때 제1음절과 제2음절의 음높이가 각각 조금씩 낮다고 설명하였다. 상성형과 평2형이 섞인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사람’에 가까운 것과 ‘사랑’에 가까운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시켰더니, EMeJ는 단순히 자음이 강자음인 경우는 ‘사랑’형, 약자음인 경우는 ‘사람’형으로 분류하였지만 ZHaP는 85%의 정답률로 상성형과 평2형을 나누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ZHaP가 적어도 기저 표시에서는 /LM/과 /MH/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EMeJ 또한 XiGS와 YLiS처럼 완전히 대립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 창원, 통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음운현상은 기원적인 3음절 상성형 즉 /LMM/이 [MMH]과 [MHM]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는 현상이다. 체언 곡용은 패러다임 상의 혼란이 심해서 참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언의 활용형에서 통계를 하면 다음과 같다.¹²⁾

(9)

용언 활용형에서 /LMM/이 [MHM]으로 나타나는 비율

ZHaP	EMeJ	XiGS	YLiS
0%	21%	30%	20%

12) 52개 용언 활용 어절을 대상으로 비율을 계산하였다.

사실 ZHaP가 [MHM]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LMM/을 [MMH]로 발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대부분의 /LMM/을 [MHɥ] 정도로 발음한다(여기서 ɥ는 약간 낮은 H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MHM]과 명백히 구별되므로 [MHM]으로 보지 않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음운변화가 곡용 패러다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3음절에서는 상성형 어간과 평3형 어간이 합류하였다. 이 두 어간은 전통적인 방언에서는 이하와 같이 완전히 다른 곡용체계를 가진다(10a). 그러나 $LM_2M_0 > MH_2M_0$ 규칙이 적용되어 두 패러다임이 갑자기 비슷해졌을 것이다(10b).

(10)	a.	(단독)	-가/를 ¹³⁾	-까지 ¹⁴⁾	-에도/에서 ¹⁵⁾
		마누라	LMM	LMMɥ	LMMɥɥ
		마지막	MMH	MMHM	MMHMɥ
	b.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마누라	MMH~MHM	MMHM	MMHMɥ
		마지막	MMH	MMHM	MMHMɥ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을 구별하는 것은 ‘-까지’류가 붙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패러다임이 합류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11a)는 ZHaP와 EMeJ의 곡용 패러다임이며, (11b)는 YLiS, (11c)는 XiGS의 자료이다.¹⁶⁾

13) ‘-가/를’류는 모든 1음절 조사를 대표한다. 1음절 조사는 예외 없이 기저형으로 /L/을 가진다.

14) ‘-까지’류는 ‘-까지, -한테, -마다, -조차, -대로, -하고, -까지, -만큼’ 등 기저형으로 /H/을 가지는 2음절 조사를 대표한다.

15) ‘-에서/에도’류는 ‘-에서, 으로’ 등 기저형으로 /L/을 가지는 2음절 조사와 /-에도, -에-는, -와-도, -와-는/ 등 1음절 조사가 두 개 합친 복합조사를 대표한다.

16) 상성형과 평3성 체인 각 10개씩에 대하여 통계를 산출하였다. 체보자가 어떤 어절에 대해서 두 성조형이 허용된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0.5로 계산하였다.

(11) a.	ZHaP	(단독)	-가/를 ¹⁷⁾	-까지/보다 ¹⁸⁾	-에서/에도
	마누라	MMH	MMHM	MMHMM	MMHMM
	마지막	MMH	MMHM	MMHMM	MMHMM
b.	YLIS	(단독)	-가/를	-까지/보다	-에서/에도
	마누라	MMH(20%)~ MHM(80%)	MMHM	MMHMM(100%)	MMHMM
	마지막	MMH	MMHM	MMHMM	MMHMM
c.	XiGS	(단독)	-가/를	-까지/보다	-에서/에도
	마누라	MMH(60%)~ MHM(40%)	MMHM	MMHMM(65%) ~MMHMM(35%)	MMHMM
	마지막	MMH(25%)~ MHM(75%)	MMHM	MMHMM(75%) ~MMHMM(25%)	MMHMM

‘-까지/보다’류가 붙은 어절의 성조형에 주목하면 (11a)에서는 평3형(‘마지막’ 등)이 상성형(‘마누라’ 등)의 패턴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합류가 일어났다. (11c)도 ‘-까지/보다’류는 같은 합류 방향을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완료한 것은 아니다. (11b)는 앞 두 패턴과는 반대로 상성형이 평3형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합류가 진행되고 있다. 상성형과 평3성이 합류하는 도중에 있다는 것은 본래 평3성 단독형에서는 나타나는 이유가 없는 MHM이 상성형뿐만 아니라 평3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2음절어의 동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2음절 상성형과 평2형은 전통적인 방언에서 (12a)와 같이 서로 완전히 상이한 곡용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12b)는 ZHaP의 패러다임이다. (12a)에 $LM^2M_0 > M^2HM_0$ 이 적용되었을 뿐 다른 변화는 전혀 없고 ‘-에서/에도’류 어미와 연결된 때 보이는 성조형 차이 때문에 상성형과 평2형은 완전히 구별된다. (12c)는 XiGS의 패러다임이다. $LM > MH$ 변화도 일어나고 $LMM \rightarrow MMH \sim MHM$ 의 동요도 보이지만 ‘-에서/에도’류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합류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17) ‘-가/를’류는 모든 1음절 조사를 대표한다. 1음절 조사는 예외 없이 기저형으로 /L/을 가진다.

18) ‘-보다’는 전통적인 방언에서는 ‘-보다가/보다야’/HHL/ 혹은 ‘-보다’/HH/이지만 이번엔 조사한 모든 동부 경남 제보자는 ‘-보다’/HL/를 보였다.

(12) a.	ZHaP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사람	LM	LMM	LMM _M	LMM _M
	사랑	MH	MHM	MMHM	MHMM
b.	ZHaP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사람	MH/LM/	MMH	MMHM	MMHM
	사랑	MH/MH/	MHM	MMHM	MHMM
	XiGS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MMH(75%)~		
c.	마누라	MH	MHM(25%)	MMHM	MMHM
	마지막	MH	MHM	MMHM	MHMM

다음 (13a)는 EMeJ의 자료이다. 상성형에서 ‘-에서/에도’가 원래 형태를 반영한 MMHM으로 나타나는 비율(81%)이 평3형의 비율(61%)보다 높은 것과 평2형의 ‘-가/를’에서 MHM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완전히 합류한 상태라고 하기는 어렵다.¹⁹⁾ (13b)는 YLiS의 자료이다. ‘-가/를’류 조사가 붙은 형태에서는 MHM, ‘-에서/에도’류 조사가 붙은 형태에서는 MMHM으로 통일되어 있다. 즉 ‘-가/를’류에서는 평2형 패러다임의 음조형이, ‘-에서/에도’류에서는 상성형 패러다임의 음조형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EMeJ의 패러다임에서 진행 중인 합류가 완성 되면 최종적으로 YLiS와 같은 패턴을 갖게 되는 것이 예상된다.

(13) a.	EMeJ	(단독)	-가/를	-까지	-에도/에서
	사람	MH	MHM(64%)~ MMH(36%)	MMHM	MMHM(81%)~ MMHM(19%)
	사랑	MH	MHM	MMHM	MMHM(61%)~ MMHM(39%)
b.	YLiS	(단독)	-가/를	-까지	-에서/에도
	사람	MH	MHM	MMHM	MMHM
	사랑	MH	MHM	MMHM	MMHM

변화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해 보이는 요소에 대해 각 제보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안에서 ‘합류’는 합류 여부와 완성도를 나타낸다. ◎는 합류가 완전히 완료되어 각 곡용형이 하나의 성조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는 합류는 완전히 완료되

19) 이러한 비율은 상성형과 평2형 각 24개 단어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다.

었으나 성조형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Δ 는 합류가 아직 진행 중임을, \times 는 합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은 상성형과 평측형 사이에서 합류가 일어난 경우 최종적인 패러다임이 원래 존재하였던 두 패러다임 중 어느 쪽으로 합류하는지 그 방향을 보인 것이다. ‘MHM’은 해당 패러다임에서 기원적인 LMM이 MHM으로 나타나는 비율을 보인 것이다.

(14)

지역	제보자	3음절 체언 어간			2음절 체언 어간			용언
		합류	방향	MHM	합류	방향	MHM	MHM
부산	ZHaP	◎	상성형	0%	\times	-	0%	0%
	EMeJ	◎	상성형	0%	Δ	쌍방향	64%	21%
창원	XiGS	○	상성형	40%	\times	-	25%	30%
통영	YLIS	○	평3형	80%	◎	쌍방향	100%	20%

먼저 합류의 완성도를 살펴보면, 3음절 어간은 부산에서, 2음절 어간은 통영에서 변화가 먼저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합류는 $LM^2M_0 > MH^2M_0$ 이 원인이 되어 시작되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2음절은 $LM^2M_0 > MH^2M_0$ 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합류가 시작하는 조건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LM > MH$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LMM이 MHM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야 합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한 조건의 차이가 지역적 차이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특히 2음절 어간 합류에 관해서는 기저 표시에서 /LM/과 /MH/의 대립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EMeJ에서 이미 합류가 시작되어 있고, 반대로 /LM/과 /MH/의 대립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XiGS에서 거의 합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3음절 어간 합류의 방향을 살펴보면 부산과 창원에서는 상성형 패턴을 따르고, 통영에서는 평3형을 따른다는 지역적 차이가 확인된다. 그

러나 자료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경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더 많은 제보자를 조사해야 그것이 지역 차이인지 개인 차이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것은 MHM의 비율이다. 패러다임의 합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times)는 용언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합류의 중간(Δ)이나 합류 후의 성조가 고정되지 않은 시기(\circ)에는 증가하며, 합류가 완전히 끝난 후(\odot)에는 0% 혹은 100%로 완전히 고정된다. 이것은 화자가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전체 패러다임을 의식하면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부 경남에서 일어난 3음절 어간 및 2음절 어간의 합류는 이번에 조사한 제보자가 많지 않아서 해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네 명의 제보자가 보이는 양상이 각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지역 차이이며 어디까지가 개인 차이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청년층 서부 경남방언의 상성형

김차균(1973, 1980)은 20대 화자들의 진주방언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15) a. $\{MH_1M_2, MH_2\} \rightarrow MH_1M$
 b. $LM_2 \rightarrow MHM_1$

첫 번째 규칙 (15a)는 첫음절에 H를 가지는 HM_0 을 제외한 모든 평측형 어절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H를 갖게 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 때문에 평측형은 첫음절과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두 곳에만 H가 나타나게 되었다.

두 번째 규칙 (15b)는 3음절 이상의 상성형을 평2형으로 바꾸는 규칙

이다. $LM_M \rightarrow MHM$, $LM_{MM} \rightarrow MHMM$ 처럼 L 및 M이 M으로, M이 H로 바뀌므로써 전체적으로 음이 조금씩 높아진다. 규칙 (15b)는 (15a)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성형에 기원을 둔 MHMM이 MMHM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

이번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청년층의 진주 방언에서는 성조 체계가 더욱 단순화된 것이 들어났다. (15)의 적용만을 받는 방언에서는 평2형의 ‘까마귀’와 상성형의 ‘고구마’는 단독형에서 똑같이 /MHM/으로 나타나지만, 기저성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까마귀가, 고구마가’ 같은 곡용형에서는 각각 /MMHM/, /MHMM/처럼 구별되었다. 그러나 현대 청년층의 방언에서는 이러한 구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층 방언에서는 ‘고구마가’도 ‘까마귀가’와 같이 /MMHM/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현상은 2음절어에서도 관찰된다. ‘사람’은 원래 ‘사람[LM], 사람이/MHM/, 사람보다/MHMM/’처럼 2음절에서는 /LM/, 3음절 이후에는 평2성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사람/MH/, 사람이/MHM/, 사람보다/MMHM/’처럼 처음부터 평측형이었던 단어들과 똑같은 곡용을 보인다. 즉 규칙이 (16)처럼 바뀐 셈이다.

(16) $\{MH_1M_2, MH_2, LM_2\} \rightarrow MH_1M$

결과적으로 진주방언의 모든 어절은 음절수와 상관없이 세 가지 음조형만을 가지게 되었다.²⁰⁾

20) 福井玲(1992)에 따르면 청년층 거창방언도 청년층 진주방언과 같은 성조체계를 가진다. 거창방언과 진주방언의 성조체계는 공식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상성형이 진주에서는 평측형으로 합류하였고, 거창에서 거성형으로 합류하였기 때문에 통시적으로는 다른 경로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거창방언의 상성형은 경북 내륙지방과 같은 $\dot{H}HM_0$ 이기 때문에 단음화 후의 형태가 HHM_0 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17)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a. HM_0	= { H	HM	HMM	HMMM}
	b. M_1HM	= {	MH	MHM	MMHM}
	c. HHM_0	= { M	MM	HHM	HHMM}

姜英淑(2006)에서는 1971년생과 1984년생의 진주 사람을 제보자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위와 같은 특징이 아주 최근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하나 없는 정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성조 변화의 특징

이상과 같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동남방언에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최근에 일어난 변화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지방에서 일어난 상성형의 변화가 모두 음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 방언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상성형이 다른 성조로 바뀌었는데 바뀐 성조는 ‘해당 방언의 성조체계에 이미 존재하는 음조형 중에서 음성적으로 가장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경북 내륙 및 서부에서 $\dot{H}HM_0$ 은 HHM_0 으로, 경북 동해안에서 $\dot{H}M_0$ 은 HM_0 으로, 동부 경남에서 LM_2M_0 은 M_2HM_0 으로, 서부 경남에서 LM_0 은 MHM_0 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오직 상성형만이 이토록 많은 변화를 겪은 까닭은 무엇인가. 성조 체계 속에서 상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특별히 불안정한 것은 아니다. 만약 상성형의 소멸 원인이 상성의 음운론적인 불안정성에 있다면 똑같이 어두에서만 나타나고 2음절 이하에서 (혹은 다른 성조 뒤에서) 축성으로 중화되는 거성이 대부분 방언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성형의 소멸은 음운론 이외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성형은 지역을 막론하고 유효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ddot{H}HM_0$, $\dot{H}M_0$, LM^2M_0 , LM^1M_0 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뀌게 된 형태 HHM_0 , HM_0 , M^2HM_0 , M^1HM_0 에 비해서 음성적으로 유효적이다. 조음음성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긴 소리인 \dot{H} 는 일정시간 동안 성대 진동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H보다 더 유효적이며, 저조 L은 편하게 낼 수 있는 높이(M)보다 낮은 소리로 내야 되기 때문에 M보다 더 유효적이다. 여기서 유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학적인 의미이며,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각 음절에 얹히는 높낮이와 길이에 관련된 요소 중에서 \dot{H} 는 H보다 유효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H와 M이 동일하게 무효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H는 M보다 유효적이다. 변별적 자질로 설명한다면 [+long]을 가지는 \dot{H} 는 [-long]을 가지는 H보다 유효적이며, [+high pitch]를 가지는 H는 [-high pitch]를 가지는 M보다 유효적이라는 뜻이다. 같은 문맥에서 [+low pitch]를 가지는 L은 [-low pitch]를 가지는 M보다 유효적이다. 다만 변별적 자질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L과 H 중에서 어느 쪽이 유효적인가 하는 문제에는 답할 수 없다. 하지만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른바 악센트 언어 중에서 H를 악센트로 사용하는 언어가 L을 사용하는 언어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L이 H보다 더 유효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상성형을 다른 성조형으로 바꾸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유효적인 음성적 요소인 장음 혹은 저조를 금지하는 제약이며, $\ddot{H}HM_0 > HHM_0$ 같은 규칙은 단지 그 결과로 일어난 중화 현상의 표면적 기술에 불과하다.

경북방언에서 상성형이 없어진 것이 장음을 금지하는 제약 때문이라는 것은 상성형이 사라진 방언에서 상성형과 무관한 장음까지 사라졌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김차균(1994)이 지적한 ‘밭히이다’/MHMM/와 같은 사동·피동 파생동사 이외에도 음성적 장음을 가지는 단어는 많다. 예컨대 전통적인 방언에서 ‘개애미, 돼애지’/MHM/, ‘버얼다’/HMM/와 같은 단어의 /MH/나 /HM/은 음성적으로 긴 상승조나 하강조로 발

음되는데 청년층 방언에서는 그러한 발음을 들을 수가 없다.

물론 음성적인 제약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경남방언의 동부와 서부가 저조에 대한 제약의 적용 시기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서부의 음운체계가 동부의 음운체계보다 상성형의 평성형화를 받아들이기 쉬운 체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차균(1973, 1980)의 기술에 따르면 70년대 진주에서는 보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측형의 H 위치에 대한 제약(어두 혹은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만 H를 허용한다)을 적용하지만, 상성형을 평성화시키는 저조에 대한 제약은 젊은 세대에만 적용되었다. 동부 방언과 달리 서부 방언에서 저조에 대한 제약이 쉽게 자리를 잡은 이유는 바로 이 H 위치에 대한 제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제약 때문에 당시 진주 방언에서는 평2형의 위치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3음절 이상에서 상성형이 평측형으로 바뀌어도 겹치는 것은 3음절 /MHM/ 자리뿐이며 /MHMM/, /MHMMM/ 등으로 발음되는 어절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상성형이 들어와도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상성형을 평측형으로 바뀌도 음운론적으로 큰 체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제약이 쉽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H 위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동부방언에서는 평3성을 취하는 수많은 어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약이 쉽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부 경남방언에서 일어난 LMM>MHH~MHM 변화에서 변화 후의 형태에 동요가 존재하는 것도 음성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LM^2M_0 은 4음절 이상 즉 LMM_M, LMM_{MM} 같은 경우에는 M에서 m으로 소리가 내려가고 이에 맞춰서 H에서 M으로 소리가 내려가는 평측형을 선택한다. 따라서 이 변화 후의 형태로는 MMHM, MMHMM 이외의 후보가 나타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리막이 없는 LMM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LMM은 낮은 음조에서 시작하여 2음절이 시작할 때 쯤에 중조에 도달하며 그 이후 3음절까지 팽팽한 평판조를 유지한다. MHM은 중조에서 시작한 소리가 2음절의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고, 절정을 지난 후에는 단어 끝을 향해서 음이 내려가는 봉우리 형이다. MMH는 중조에

서 시작하여 3음절의 절정을 향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절정을 지나고 나서 급속히 소리가 내리지만 충분히 내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소리로 단어의 발음이 끝난다. LMM의 음조를 MHM, MMH와 비교해 볼 때 만약 내리막을 기준으로 한다면 LMM에는 내리막이 없고, MMH의 내리막은 MHM의 내리막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LMM은 MHM보다 MMH에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반대로 오르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LMM에서의 급한 상승은 MMH보다 MHM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동남방언은 일본어의 많은 방언과 같이 내리막을 음향적 단서(acoustic cue)로 성조를 인식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LMM이 주로 MMH로 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리막의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MHM로 바뀌는 변화도 일어난 것 같다. 이러한 음성적인 이유 때문에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 /LMM/의 음조형은 ‘많은 경우 MMH, 가끔 MHM’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LM 어간과 MH 어간 및 LMM 어간과 MMH 어간 사이에서 패러다임의 재통합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LMM/의 음조형이 더 이상 동요를 보이지 않고 어절이 속하는 패러다임의 유형에 따라 MMH 혹은 MHM 중 하나로 고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EMeJ의 언어에서 기원적인 /LMM/은 3음절 어간의 곡용 패러다임 속에서는 100% [MMH]로 발음되지만 아직 변화 과정에 있는 2음절 어간 곡용 패러다임 안에서는 64% 비율로 [MHM]으로 발음된다. 2음절 어간에서의 합류가 완성되면 최종적으로는 YLiS처럼 100% [MHM]으로 발음하는 안정된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방언 청년층 성조 변화를 설명할 때 관건이 되는 첫 번째 요소가 음성학적 관점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 패러다임일 것이다. 3음절 체언 어간과 2음절 체언 어간에서 일어난 패러다임의 통합은 서로 유사한 두 패러다임 간의 유추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ZHaP와 EMeJ의 3음절 체언 패러다임처럼 기존의 두 패러다임

중에서 하나만이 살아남는 경우는 기저형의 변화만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YLiS의 2음절 체언 패러다임처럼 두 패러다임이 혼합되어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어간과 조사(혹은 어미)에 따로 기저형을 설정하여 굴절형을 그 조합으로 설명하는 종래의 방식만으로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경북방언 화자 중에서 단음화 현상이 진행 과정에 있는 YPeL, MJJ의 언어에서는 규칙적 상성형 용언 어간이 가지는 장음은 불규칙적 상성형 어간보다 훨씬 잘 보존되는 경향을 보인다. 후속어미에 따라 상성형과 평측형이 교체되어 패러다임의 일부만이 장음을 가지는 불규칙 상성형에 비해 항상 상성형으로 나타나 패러다임 전체가 장음을 가지는 규칙적 상성형은 인지적으로 장음의 존재를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이 두 예는 화자들이 의식 속에서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따로 기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마다 굴절 패러다임 전체가 기억되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7. 맺음말

이상 정상도의 여러 방언에서 일어난 상성형의 음운론적 변화를 기술하고 그 변화와 굴절 패러다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3~6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 자료를 정리한 3장에서는 상성형이 거성형으로 바뀌는 변화 속도에 지역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김천, 청송, 포항에서는 포항의 한 제보자를 제외하고 장음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보였지만 안동에서는 아직 단음화가 진행 중이다. 40대 및 60대 포항방언 화자의 상성형을 조사해 본 결과 포항방언에서는 $\ddot{H}M_0 > \dot{H}HM_0 > HHM_0$ 과 같은 순서로 음조형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에서 $\ddot{H}M_0 > \dot{H}HM_0$ 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조형 자체가 내륙방언에서 차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단음화 현상이 진행 중인 3명 중 2명의 언어

에서 규칙적 상성형 어간보다 불규칙적 상성형 어간에서 단음화가 일찍 진행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장음을 발음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비교하였을 때에, 과도교정 등을 감안한 장단음 정확도가 음향음성학적인 장음의 ‘길이’와 비례하는 것을 보았다.

4장에서는 동부 경남 자료를 다루었다. $LM^2M_0 > M^2HM_0$ 의 변화가 청년층에서는 부산, 창원, 통영에서 완료되었다. $LM > MH$ 는 창원, 통영에서 완료되었으나 부산에서는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이 변화와 관련해서 기원적인 LMM의 대부분이 MMH으로, 일부가 MHM으로 바뀌는 수의적 현상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상성형이 평측형으로 바뀌는 변화의 결과, 3음절 체언에서 상성형 어간과 평3성 어간이 합류하고, 2음절 체언에서 상성형 어간과 평2성 어간이 합류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났다. 3음절 체언의 합류는 모든 제보자 언어에서 완료되어 있다. 2음절 체언의 경우, 4명 중 ZHaP(부산)과 XiGS(창원) 언어에서는 아직 합류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Emej(부산) 언어에서는 합류가 진행 중이며, Ylis(통영) 언어에서는 완전히 완료되었다. 3음절 어간은 합류되기 전의 두 패러다임 중의 하나를 그대로 계승하지만 Ylis의 2음절 합류형에서는 두 패러다임이 섞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합류가 일어난 패러다임에서는 기원적인 LMM이 MHM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패러다임마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서부 경남 자료를 다룬 5장에서는 원래 단순했던 청년층 진주방언의 성조 체계가 최근에 더욱 단순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70년대의 청년층에서 이미 발견된 바 있는 상성형의 평2형화가 완전히 완료되고, 상성형에 기원을 둔 평2형마저 H 위치에 관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71년생이나 84년생 제보자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6장에서는 3~5장에서 정리한 변화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현재 동남방언에서 진행 중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음성학적인 관점의 접근과 패러다임을 중시하는 형태론적 접근의 두 가지이다. 상성형을 다른 성조형으로 바꾸는 변화는 모두 음성적으

로 유표한 장음 및 저조를 금지하는 제약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동부 경남에서 LMM이 평측형으로 바뀔 때 MHM과 MMH 사이에서 동요를 보인 것 또한 음성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동부 경남방언에서 MHM과 MMH 사이의 동요 비율이 꽤러다임마다 다르고, 단음화가 진행 중인 경북방언에서 어간이 규칙 상성형이나 불규칙 상성형이냐에 따라 장음 보존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화자의 성조 인식에서 꽤러다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성형만을 봐도 동남방언에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방언 성조에 대한 연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방언을 수집·분석하는 작업이 주가 되어 왔다. 전통적인 방언의 성조 현상 중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으므로 그러한 연구는 물론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청년층의 언어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동남방언이 비성조언어로 바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고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많은 변화가 일어난 후에 자료를 수집해서는 그 사이에 지역별로 따로 일어난 수많은 변화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청년층의 성조 실태를 조사하여 기술하는 작업이 전통적인 방언의 조사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시대 내에서 통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년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세진(2006),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만(1966), 慶南 方言의 聲調 研究,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21-51.
 김주원(2000), 영남 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語文學》, 韓國語文學會, 91-114.
 김차균(1973), 국어 성조론과 서부 경남 방언의 성조, 《한글》 152, 한글학회,

381-421.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김차균(1994), 60대 대구 방언과 20대 대구 방언 성조의 대조 분석, 《언어학》 16, 한국언어학회, 23-80.

김차균(2001), 고성방언과 성주방언 성조의 비교, 《한글》 253, 한글학회, 5-102.

김차균(2002), 창원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의 비교,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1-80.

김차균(2004), 우리말 성조 연구에서 방점 표상과 성조 표상, 《한글》 265, 한글학회, 5-55.

김차균(2005), 삼척방언과 울진·창원방언의 성조체계 비교, 《한글》 268, 한글학회, 5-60.

김차균(2008), 경남 동남부 방언의 성조 체계, 《언어학》 50, 한국언어학회, 23-105.

文孝根(1962), 大邱方言의 高低·長短, 《人文科學》 7,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3-103.

박숙희(2008),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역락.

박종수(1979), 서부 경남 방언의 성조형 기술 -진주를 중심으로-, 《晉州教大 論文集》 19-1, 진주교육대학교, 23-43.

성철재(2008), Q-tone 청취 등급을 이용한 경남 동남부 방언 성조 분석, 《한글》 279, 한글학회, 5-33.

이기문 외(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學術院論文集》 30(人文社會科學篇), 大韓民國 學術院, 45-143.

이기문 외(1993), 《한국 언어 지도집》, 성지출판사

이문규(2002), 대구방언과 안동방언의 성조 비교 연구, 《語文學》 77, 韓國語文學會, 101-149.

이문규(2004), 안동 방언의 성조형과 성조 규칙, 《언어과학연구》 30, 언어과학회, 137-160.

정연찬(1986), 《慶尙道方言聲調研究》, 탑출판사.

崔明玉(1999), 現代國語의 聲調型과 그 分布, 《眞檀學報》 88, 진단학회, 555-581.

許雄(1952), 傍點研究 -慶尙道方言 聲調와의 比較-, 《東方學誌》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3-194. [許雄(1963)에 '國語 聲調 研究'라는 제목으로 재수록됨.]

許雄(1963), 《中世 國語 研究》, 正音社.

- 姜英淑(2004), 西部慶尙南道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 -竹島·欲知島·忠武·晋州を中心に-, 《東京大學言語學論集》 23, 東京大學 言語學研究室, 45-70.
- 姜英淑(2005), 韓國語の晋州方言のアクセント, 《東京大學言語學論集》 25, 東京大學 言語學研究室, 47-60.
- 姜英淑(2006), 東部慶尙南道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 《東京大學言語學論集》 24, 東京大學 言語學研究室, 79-97.
- 福井玲(1992), 慶尙南道居昌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 《明海大學外國語學部論集》, 明海大學 外國語學部, 15-24.
- 福井玲(2000), 韓國語諸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 《韓國語アクセント論叢》, 1-20.

[780-713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위덕대학교 지혜관 309호]

E-mail: takayoshi2000@hotmail.com

투고 일자: 2011.2.23

심사 일자: 2011.3.21

게재 확정 일자: 2011.4.4

‘-inka’

[Choi, Yoon-Ji]

이접과 양태의 상관관계 고찰: ‘-인가’를 중심으로 [최윤지]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disjunction and modality, mainly based on the analysis and the interpretation of ‘-inka’. The particle ‘-inka’, which was recently grammaticalized from a combination of a copula ‘-i’ and an interrogative particle ‘-nka’, has two kinds of grammatical function such as 1) coordinating two phrases and 2) adding special meanings to the preceding phrase. The meaning of ‘-inka’ can be described as followings: 1) exclusive disjunction (as opposed to inclusive disjunction), 2) uncertainty (in terms of epistemic modality), and 3) pragmatic meaning (like ‘indifference’ and ‘insulting’). These meanings are proven to b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terms of semantics. In particular, language typological studies show that disjunction are connected with irrealis including interrogative.

keywords: ‘-inka’, coordination, exclusive disjunction, epistemic modality, uncertainty, grammaticalization

On The Changes of Rising Phrasal Tone in Korean
South-east Dialects of Young People

[Ito Takayoshi]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승형 변화 양상 [伊藤貴祥(이토 다카요시)]

This paper examines the phonological changes of rising phrasal tone which have occurred on several Korean South-east dialects of young people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hange and flexional paradigms.

Rising phrasal tone has changed to other phrasal tones on all researched dialects of young people; $\ddot{H}HM_0 > HHM_0$ in the inland of Geongbuk, $\ddot{H}M_0 > HM_0$ (partly H^2M_0) in the east coast of Gyeongbuk, $LM_0 > MHM_0$ in the east and central Gyeongnam, and $LM^2M_0 > M^2HM_0$ in the west Gyeongnam. It can be said that these changes are all due to constraints which ban long vowel or low pitch, which are phonologically marked. An analysis on languages in which vowel shortening is still progressing show us that declinable words with unchangeable rising phrasal tone has stronger tendency to keep long vowels in regard to declinable words with changeable rising phrasal tone. In the east and central Gyeongnam dialects, the phrases which had LMM once are pronounced as MHM or MMH at random, and the rate differs according to the paradigm which the phrase belongs to.

key words: dialect of young people, tone, rising phrasal tone, phonological constraint, flexional paradigm.

Word, as a Syntactic Unit

[Han, Jeong-Han]

통사 단위 단어 [한정환]